

## 2008년 2/4분기 축산관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25일 2008년 2/4분기 축산관측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육우는 산지 가격 하락, 젖소 사육두수 감소, 돼지 산지가격은 20만5천원~21만5천원으로 전망했다. 또한 산란계는 사육두수 증가, 육계는 사육두수 감소를 전망했다. 이에 본지는 축종별 전망요약을 게재한다.

### ● 한육우

#### 3~5월 한우 수소 450~470원

쇠고기 공급 증가, 수요 감소로 산지가격 하락이 전망되는 가운데 3월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8.2% 증가한 22만1천두 전망되며 인공수정 증가로 6월 사육두수는 전년동기보다 7.2% 증가한 23만3천6천두로 전망된다.

산지가격은 설 명절이 지난 3~5월 쇠고기 수요는 전년기보다 감소가 전망되며 사육불안 심리로 인해 산지가격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

다. '08년 3~5월 한우(600kg) 암소 산지가격 460~48만원대, 수소 450~47만원대, 수송아지 190~21만원대로 전망되고 있다.

### ● 젖소

#### 지난해 분유 재고 증가로 '08년 유제품 수입량 감소 전망

젖소 사육두수 감소속 둔화가 전망되고 있다. '08년 3월, 6월 1세미단 잔재량 지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젖소 도축은 감소세를 보인다. 지난해 1세 미단, 1~2세 두수 감소로 '08년 3월, 6월 사육두수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3월 사육두수는 45만1천두로 지난해 3월보다 2.1% 감소 6월에는 지난해 6월보다 1.4% 감소한 45만두가 전망된다.

올해1분기 원유 생산량은 추위로 감소가 전망되며 '08년 3월, 6월 착유우 두수도 감소가 전망된다. '08년 1분기 원유 생산량은 54만7천 톤으로 지난해 동기기간보다 1.4% 감소가 전망되며 2분기에는 지난해 동기기간과 비슷한 56만9천톤이 전망된다.



## ● 돼지

### 3~5월 가격 20만5천원~2만5천원

돼지 사육두수는 향후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08년 3월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8% 감소한 943만두로 전년 동기보다 0.9%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6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0.5% 감소한 93만두로 전년 동기보다 0.8% 감소가 전망된다.

훈하두수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08년 2~3월에 출하예정인 2~4개월령 마릿수는 '06년 12월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4~5월에 출하되는 2개월령 미만의 마릿수는 1.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돼지 가격 하락으로 08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08년 가격은 출하두수 증가와 쇠고기 수입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소갈비 제외)된 경우 산지가격은 5.6% 낮은 20만9천원, 소갈비가 포함된 경우 9.0% 낮은 20만1천원으로 전망된다.

3~5월 돼지(100kg) 산지가격은 훈하두수 증가로 20만5천원~2만5천원으로 낮게 전망된다.



## ● 산란계

### 3~5월 계란 가격 900~천100원 전망

3~6월 사육두수는 산란 실용세 입식두수 증가로 인해 전년보다 0.6% 증가한 5천685만수로 전망된다. 산란용 마릿수 1.2% 증가가 예상된다. 신규로 계

란 생산에 가담하는 계군수가 증가하고 농가의 노태의향도 낮아, 6월의 산란용 마릿수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4천399만수로 전망된다.

3~5월 계란 산지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계란 생산량이 증가하나 소비 증가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3~5월 계란 산지가격은 지난해보다 상승한 900~천100원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으로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 육계

### 도계수수 감소로 육계가격 1천400~천600원 전망

3월 사육두수는 병아리 생산두수 감소로 전년보다 3.0% 감소, 2월보다는 22.6% 증가한 6천143만수로 전망된다.

사육두수 감소로 3월 도계수수는 전년보다 2.1% 감소한 4천752만수로 전망되며 도계수수 감소로 3월 육계 가격은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1천400~천600원으로 전망된다.

사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높아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농가와 계열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이후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난해보다 높아 도계수수 증가가 예상된다.